

2023년 12월 3일 "(대강절 2주)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요 8:12)

요한은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빛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어둠 속 백성

요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빛 되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겐 은혜의 율법이 있었지만, 이것은 한시적이었으므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켜 대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은 율법 엄수였습니다. 그 결과, 삶이 정죄하는 방식으로 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분께 의탁하지 못하고 정죄와 판단의 방식을 앞세우니, 그분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단계마다 평가를 하고 성공과 실패를 예측/결정합니다. 과학 발전의 기저에는 '누가 먼저'라는 이슈가 항상 앞섭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최대 관심은 판단의 기준을 잘 세우는 시스템입니다.

세상은 어떤 영역에서도 정죄와 판단이 강력한 베이스이며,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성경은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람 내면에는 절실한 바람이 있습니다. 정죄 받고 않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실한 이유는 자기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자유하여 자신이 성장(성숙)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도덕적 압박이 아닌,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성장의 길입니다.

이것은 정죄와 형벌이 아닌 정죄 없는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만 가능합니다.

[2]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정죄와 판단의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오면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만납니다(요 8:12 참고). 이 빛은 새 생명을 살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사랑과 자유의 능력입니다(롬 8:1-2 읽음).

사람이 자기 죄를 정죄 받아 형벌을 받는 방식의 삶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품으신 뜻이 아니며, 나와 공동체의 참된 성장을 이룰 수 없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으로 대하시며, 정죄로 가득 찬 죄와 죽음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요 8:1-11 간음한 여인 이야기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인을 끌고 온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빌미를 잡아 고발하려는 구실을 찾습니다. 예수님과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돌을 던지려던 유대인들이 여인을 떠납니다. 이들의 정죄가 멈춘 것입니다.

그 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이제 여인은 사람의 정죄에서 풀렸습니다. 정죄에서 풀리는 순간 사람 내면에는 새로운 빛이 열립니다. 그리고 선한 새 힘을 얻습니다. 이 힘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죄 아래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힘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또 하나의 영적 과제가 주어집니다. 자신을 정죄하고 비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가치있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자유의 딸이 됩니다.

<맺음>

그리스도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정죄와 판단의 방식으로부터 생명과 자유의 새 삶으로 옮기신다는 측면에서 살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옛 방식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정죄하지 않는 빛 되신 예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밝은 삶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세상은 사람을 대할 때 정죄와 판단의 방식을 사용하지만 빛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둘의 차이를 말씀해 보세요.
2.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이 어떻게 죄를 극복하고 새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셨습니까?